

## 김항록(미술학) 교수 김종영 조각상 수상



김항록(미술학) 교수가 지난 23일 제5회 김종영 조각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동안 목재와 선재를 이용해 독창적인 영역을 구축해온 공로가 인정돼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상식은 지난 26일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실시했으며, 상금 1천만원을 받게 된다.

## 김인재(정보관리학) 교수 최우수논문상 수상



김인재(정보관리학)교수가 한국경영정보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학술 부문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시스템 개발 방법론인 객체지향기술의 기업체에서 채택되는 과정 연구'이다.

## 대각전, '올해의 작품상' 선정



서울캠 90주년기념 문화관 대각전이 한국실내건축가협회(KOSID)의 '올해의 작품상'에 선정됐다.

지난해 개원한 대각전은 전통 사찰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현대적 편리성을 최대한 살린 내부건축물로써 고유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한국실내건축가협회 주최로 오늘(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에 대각전은 사진형태로 전시된다.

## 경주캠 20주년 행사 종강법회로 대체

지난 달 12일로 개교20주년을 맞이한 경주캠퍼스가 학교전체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하없이 올해 한해를 지나치려려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교1백주년기념사업본부 경주지부(지부장=홍광표·조경학)는 개교20주년 행사를 위해 지난 해부터 예산자금을 집행했으며, 초기에 기념음악회를 준비해 오다가 계획이 변경돼 다음달 12일 경 '2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처음 실시키로 했던 기념법회가 무산돼 종강법회로 대체됐다.

# 서울 김호중·성나현 ... 경주 이상섭·황재영 당선

## 투표율, 50.1%·53.3%로 저조 ... 학생참여유도 당면과제



서울캠 31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으로 당선된 김호중·성나현



경주캠 16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으로 당선된 이상섭·황재영

**서울캠**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치러진 제 31대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김호중(불교4)·성나현(응생3) 조가 총 유권자 1만1천1백95명 중 5천6백6명이 참여해 투표율 50.1%, 찬성을 84.19%로 당선됐다. ▶권력기사 서울캠 2면

이번 투표는 마지막날 야간강좌 지역의 마감 20분전까지 30여표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는 등

아슬아슬하게 진행됐으며, 결국 과반수에서 8명을 넘겨 선거가 성사됐다. 개표는 26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해화관 2층 로비에서 진행됐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신현찬(연영4) 총대의장은 "낮은 투표율은 학생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당선자들의 과제라고 말했다.

**경주캠** 지난 26일 투표를 치른 결과 '상실과 절망의 시대, 그러나 멈출 수 없는 저항의 연대'란 가치를 내세운 기호1번 이상섭(불교3)·황재영(수교3)조가 제16대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날 소강당Ⅱ에서 진행된 개표결과는 4학년제를 제외한 총 유권자 6천 2백 71명 중 3천 9백 41명(53.3%)이 투표해, 기호 1

번=1천 7백 96표 △기호 2번=1천 3백 7표 △무효=1백 87표 △분실=51표 등으로 4백 89표의 차이를 보였다. 제16대 총학생회 이상섭 당선자는 "정책과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작업을 지금부터 진행하겠으며, 1만의 선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서울캠 투표결과)

예측대	투표자	투표율	찬성	반대
생명지원 과력대	270/367	73.5	78.5	17.4
사회과학대	323/419	77	92.2	6.5
사범대	694/1011	68.6	88.76	9.94
경신대	579/1122	51.6	85.28	12.65
이간김좌	1312/2541	51.6	85.28	12.65
법과대	118/309	38.1	74.57	25.42
불교대	142/289	49.1	80.28	19.01
문과대/사과대	756/1662	45.4	85.84	11.90
공과대/정산대	1072/2838	37.8	84.51	12.77
총계	5606/11196	50.075	84.19	13.64

(경주캠 투표결과)

예측대	투표자	투표율	기호1	기호2
불교대/인문대	1051/1931	54.4	525	450
자연대	659/1180	55.8	503	110
법정대/상경대	922/1692	54.5	363	499
한의대	159/377	42.2	76	77
의과대	76/186	75.2	40	25
외과대	229/365	62.7	153	55
이간김좌	245/625	39.2	136	91
총계	3341/6271	53.3	1736	1307

## 교수회 총장후보추천선거 1차유세

# "총장은 교수 손으로"... 12월 9일 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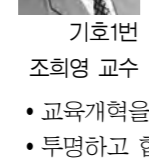
교수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오홍석·지리교육학)는 교수회 총장후보추천선거 유세를 지난 25일 경주캠에서, 이어 26일 서울캠에서 각각 개최했다.

서울캠의 경우 지난 26일 6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관 L401에서 오후 4시 40분부터 유세가 시작됐다. 유덕기 교수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의 손으로 총장을 선출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다"며 "이번 선거가 축제 분위기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 교수님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홍석 선거위원장은 "선거는 업무와 절

## 후보자 공약



• 21세기를 주도하는 불교적 동국인 양성지향  
• 행정운영 및 재정의 합리화를 통한 대학의 균형 발전 도모  
• 세계적 수준의 연구활동이 보장되는 대학발전 추구  
• 국내외 최고수준의 경쟁력 확보



• 교육개혁을 통한 불교대학이념 구현  
•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발전  
• 경주캠의 자율성 확보 및 전문의료인에 의한 의료원 합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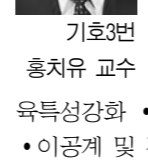
• 인공정수처리 등 행정개혁  
•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  
• 불교대학이념의 구현  
• 교수회의 활성화: 학사운영에 신현제 교수 참여하는 교수회



• 인성교육 등 미래지향적인 교육개혁 추구  
• 경주캠의 지역성 강화  
• 연구비의 공정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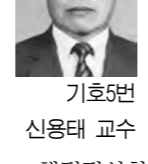
• 교육·연구 중심의 21세기형 선도 대학지향  
• 불교·한국학을 중심으로 한 동양학 육성  
• 단과대학 중심 학사행정 개혁 및 화합과 개혁의 조화



• 경주캠의 행정자율화 및 교육특성강화  
• 양·한방 종합병원 체계구축  
• 이공계 및 경상분야 산학협력 활성화  
• 재원확보의 구체화, 예산분배의 투명화



• 교수중심대학 운영위원회 설치  
• 경주캠의 위상제고 및 전원기숙사 수용  
• 총장 이하 모든 보직자의 각종수당 및 공간철폐  
• 교수연구비 증액 및 우수교수에 대한 특별대우



• 행정전산화와 행정부서 집중운영  
• 제3캠퍼스 건립보류, 불교종합병원 조계종 지원하에 건립, 동국발전을 위한 총장의 위상정립

# 노조, 총장추천위 제안

## 지난 26일 노사협의회 ... 불교종합병원 건립 등 협의

11월 노사협의회가 지난 26일 5시 서울캠 교무위원회실에서 치러졌다.

학교측 대표로는 송석규(철학) 총장을 비롯 7명이 참석했으며 노조측 대표로는 백경선 위원장을 비롯 9명이 참석해 회의의 진행했다.

노조측은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규정의 제정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에서는 총장선출은 현행법상 법인의 고유권한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고 노조의 입장을 법인에 건의하겠다는 것에 그쳤다.

또한 노조측은 제3캠퍼스와 불교종합병원 건립문제에 있어서 재정부담 가중과 사업추진의 혼란을 우려하고, 사업추진의 재검토를 제기했다. 이에 학교측은 불교종합병원건립 후 제3캠퍼스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불

교종합병원은 내년말 건축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를 점진적으로 진행해 학교재정에 큰 무리를 주지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개혁 및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노조측은 학제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함을 강조했다. 팀제나 연봉제 시행은 노조측과 사정협의가 필요함을 피력했고, 직인운영정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측은 LG경영진단단의 보고서를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추진팀을 구성했으며 이와같은 노조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표명했다.

또한 노조측은 기능직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능직 대기실에 재정부담 가중과 사업추진의 혼란을 우려하고, 사업추진의 재검토를 제기했다. 이에 학교측은 불교종합병원건립 후 제3캠퍼스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불

## 국고보조금 7%증가... 교육환경개선 투자

예산조정과(과장=김준호)는 본교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98학년도 사업대학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23억9천7백만원보다 7%가량 증가한 25억6천2백만원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금액에 98학년도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지원받는 9억원을 합하면 올해

본교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은 총34억6천2백만원이다.

배정받은 국고보조금은 △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교육시설 설비확충 △대학정보화 관련 기자재 구입 △도서관 및 도서관 전산화 경비 등으로 쓰인다.

## 보리소

### 정법과 팔세법

박 경 준(불교대 불교학부)

부처님께서 코삼비에 계시 때였다. 부처님이 한 여인에게 입신을 시켰다는 풍문이 나돌면서 부처님 제자들은 탄발하기가 힘들었고 갖은 욕설과 비난을 들었다. 그러자 아난이 부처님께 건의하였다. "세존이시여,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난아, 다른 마을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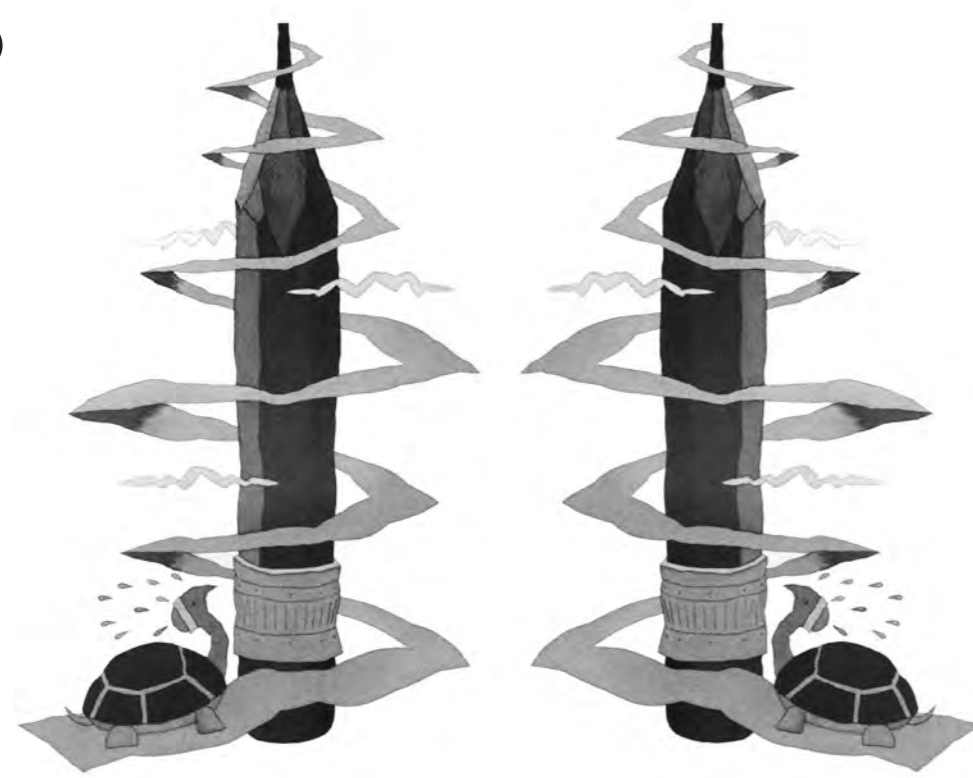
"아난아, 그런 식으로 헤서는 안된다. 이대로 이곳에 머물면서 진실이 밝혀질 때를 기다리자. 그런 후에 떠나도 늦지 않을 것이다. 아난아, 세상 사람들은 이익과 손해,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책망, 괴로움과 즐거움 등 팔세법(八世法)에 의해 행동하고 동요된다. 그러나 여래는 이런 것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무상하여 일어났다가는 금방 사라져 버린다."

실로 이 팔세법을 모든 행동의 동기와 준칙으로 삼고있는 우리에게 이것은 벽력파도 같은 말씀이다. 그렇다. 부타의 가르침을 삶의 이정표로 세워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에게 아무리 이롭고 즐거운 일이라도 정법에 어긋나는 일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비록 손해가 따르고 욕을 먹더라도 정법에 합치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해야 한다. 그 어떤 세속적 동기의 유혹도 떨쳐버리고 다만 정법에 따라 '가야할 길' 이기에 가고 '해야 할 일' 이기에 한다는 자세로 항상 살아가야 한다. 먼 옛날, 가이게스라는 회합의 한 목동이 금반지를 얻게 되었는데, 사람들 틈에 앉아 우연히 반지를 돌려보았더니 놀랍게도 자신의 모습이 옆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 반지를 원래의 위치로 돌려자 다시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되었다. 이것은 신통력을 갖은 것이 알려져 그는 왕의 한 사환으로 채용된다. 그후 그는 왕후와 간통하고 왕후의 도움으로 왕을 살해하여 그 왕국을 차지한다. 이른바 이 '가이게스의 금반지' 라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는 무슨 배운말처럼 가이게스의 행동을 비난하게 된다. 그러나 그에게는 신묘한 금반지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의한다면 그를 비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를 자신이 그런 놀라운 반지를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우리는 이 물음 앞에 참으로 정직하고 진지하게 서 보아야 한다. 정법을 따르려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한켠에 새기면서,

## 고수동정

▲성몽길(화학) 교수=지난 29일부터 오는 6일까지 98한국-체코 국제 공동세미나에 참석.  
▲민병록(연극영화학) 교수=오늘(30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대만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참석.  
▲임기중(국문학) 교수=지난 20일 열린 한국학술단체연합회 제1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인문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학술단체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논문발표.

## 대시문사 기획광장



# "야, 덤벼봐"

동대학술상·문학상이 여러분과 한판 겨룰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두주먹 불끈 쥐고 도전해 보십시오. 까짓, 깨지면 어떻습니까. 젊는데! 안그렇습니까? 결전의 날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출사표를 던지십시오.

제36회 동대 학술상 작품모집 △모집분야 : 인문과학상-본상 및 가작, 사회과학상-본상 및 가작, 자연과학상-본상 및 가작 △응모요령 : 3개 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응모자격 :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 1998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상 : 인문과학상-본상50만원 가작25만원, 사회과학상-본상50만원 가작25만원, 자연과학상-본상50만원 가작25만원 △심사위원 :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직과 함께 발표 △심상작 발표 : 1999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제13회 동대 문학상 작품모집 △모집분야 : 시부문-본상 및 장려상 소설부문-본상 및 장려상 평론부문-본상 및 장려상 △응모요령 : 시부문-3편 내외, 소설부문-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평론부문-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응모자격 :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 1998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상 : 시부문-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부문-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부문-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심사위원 :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직과 함께 발표 △심상작 발표 : 1999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 총학, 지난 26일 총장실 접거 해제

## 오늘(30일) 이사장·다음달 4일 총장 면담조건으로

총학생회(회장=구준서·전자4)는 지난 26일 밤11시에 총장실 접거를 해제했다. 이는 지난 3일 총장실을 점거한지 23일만의 일이다.

학교측은 지난 21일 총학생회에 22일까지 점거를 해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학생처장 명의의 공문을 총학생회에 전달했다. 이에 총학생회는 23일 오정수(산림자원학) 학생처장과의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이튿날(24일) 이사장 및 총장 면담 일정과 내용이 결정되면 점거를 해제하겠다는 요구조건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 25일 오정수 학생처

장과의 2번째 면담을 통해 오늘(30일) 이사장 면담을 갖고 다음달 4일 총장 면담을 성사시킨다는 조건으로 총장실 점거 해제를 결정한 것이다.

오늘(30일) 김천 직지사에서 이뤄지는 총학생회측과 오녹원 이사장의 면담에서는 98년 총장선거 과정 중 나타났던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또한 교수회만의 직선제가 갖는 파행성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차기 총장선거부터는 학내 구성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또한,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송석구 총장과의 면담에서는 △5백억 이월적립금 내역에 대한 교육부 제

출용 자료 공개와 투자방안에 대한 제시 △전공교수총원 △교양강좌 증설과 질적 개선분야에 대한 투자 △불교종합병원의 재정확보방안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구성원 간 논의기구인 대학운영위원회 건설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총장실 점거농성 해제와 관련해 총학생회측은 "총장실을 점거한지 23일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고 문제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학사행정 마비 등 부작용만 발생했다"며 "입시철을 맞아 총장실 점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발전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합의해 이사장·총장 면담을 조건으로 점거농성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남대철 기자

제31대 총학생회 당선자 김호중·성나현조를 만나

# “동국에 활력 불어넣는 학생회 건설”



김호중(불교4)·성나현(응생3)조가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제31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으로 당선된 김호중(불교4)·성나현(응생3)조를 만나 보았다.

들의 관심이 의외로 높았으며 선거운동을 통해 학생들을 직접 만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여겨진다. 학생들의 의식지향성과 학내사태를 직시할 수 있었다.

**-당선소감을.**  
=기쁘다. 올해 선거는 예년과 달리 단과대 선거와 같이 치르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는데, 결과가 좋아 선거운동을 한 일꾼들이 큰 힘을 얻었다. 투표를 해준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선거운동을 통해 정리된 학생들의 관심사를 풀어내는 데 노력하겠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그동안 도서관·중문·후문에서 야심선전전을 펼쳤는데 우리의 얘기에 귀 기울여 주는 학생들이 많아 즐거웠다. 이렇듯 학생

**-31대 총학생회의 중점사업방향은.**  
=동국대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2기 범동국운동을 펼쳐 학생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학내 복지문제 해결에 힘쓸 것이며 학교 당국과 조화를 통해 학내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안정적·상시적 기구 '대학운영위'를 설치하고, 대중사업 '동국인의 날'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

또한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쌍방교감을 이뤄 그 속에서 사업지점을 찾아가는 학생회를

건설해 '왕따' 학생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한총련으로 통큰 단결을 통해 한총련 혁신의 모습을 보이고, 학생운동이 희망으로 남도록 할 것이다.

**-법인의 총장연임결정·이월적립금 문제·불교종합병원 및 제3캠퍼스 건립기금 문제 등 현 학내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사실 선거 때문에 지난 3일 총과업 이후로 학내 사태를 공론화 시키지 못했다. 공론화의 방법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30대 총학생회와 크게 다르지 않게 계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겠다.

**-검찰의 7기 한총련 대의원 전원 구속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은.**  
=7기 한총련이 왜 이적단체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면서 행태적 검찰의 방침은 민중들의 자주적 요구를 마아내려는 계산 속에서 이뤄진 한마디로 어불성설의 처사이다.

또한 그간 5·6기 한총련 탄압 속에서 지친 학생회 일꾼들이 이번 검찰의 처사를 당연히 감내해야 할 것로서 여기는 것이 안타깝다. 7기 한총련 대의원의지를 사퇴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며 앞으로 기자회견이나 인권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김미경 기자

# 이전부터

## 공덕공덕 컴플렉스

O...99학년도 총학생회 선거가 간신히 50%를 넘겨 성사되었는데, 자신의 작은권리를 찾지않는 유권자들이 많아 선거운동원들은 목이 쉬도록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거릴까. 선거 막바지가 되자 한 포라도 더 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니.

이에 한 선거운동원 한마디, "왜 투표율만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거릴까, 나 아무래도 50% 컴플렉스에 빠졌나봐!"

## 공초의 변

O...“학생회관 1층은 용두사미!” 학생회관 1층 로비에 버려진 담뱃재와 공초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학생들은 담배공초와 재를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바닥에 그냥 버리기 때문이라고, 의자를 설치할 당시 재떨이를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한 학기가 지나도록 재떨이를 설치할 기미는 보이지 않으니.

이에 본 회견무대자 왈, “재 떨어져... 재떨이 쥐!”

## 중 췌!

O...“누구를 위한 특식인가?” 생활협동조합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지난 주 금요일 특식을 싸게 팔았는데.

이날 교직원 식당에서는 LA갈비를 2천원으로 판매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러나 교직원들의 이용이 많아 당일 1시 이전에는 학생들에게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 식당을 찾은 많은 학생들이 황당(?)해 했으니. 이에 학생회관에서 동국관까지 갈비를 먹기위해 온 한 학생 왈, “에라~이. 나 갈비 먹을 줄 아는데...”

## 용도변경

O...부엌도 되고 화장실도 되는 다목적 화장실 출현!  
학생회관 2층 여자 화장실이 본래의 목적보다 다양하게 이용된다는데. 알아본즉, 화장실 세면대에서 설거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음식찌꺼기들로 세면대가 막히는 것은 물론 세면대를 막은 음식물의 냄새들로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낀다고 하니. 이에 세면대를 이용하던 한 학생 왈, “화장실로부터의 초대. 짹짹하게, 불쾌하게!”

## 교육비납입증명서 배부

경리과(과장=박환오)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각 단과대 교학과에 비치해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내년 1월말까지 비치해둘 계획이며 분실했을 경우 경리과에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취업과, 기업체홍보사서

취업과(과장=김병수)는 오늘(30일)부터 12월 말까지 유망기업 50여개를 선정, 기업체 홍보에 나선다.

이번 홍보는 각 기업의 인사과를 직접 방문하여 졸업예정자 현황을 알리고 채용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 취업설명회 3일 열려

아메리카 생명보험(주) 회사의 취업설명회가 다음달 3일 오후 2시 90주년기념 문화관 덕담세미나실에서 열린다.

## 전해투 후원의 밤 5일 개최

전해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 복지 투쟁특별위원회·이하 전해투)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다향관 학생식당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 단과대·총대·졸준위 선거 마무리

## 후보 미등록 단위, 내년 3월 선거 실시 예정

99학년도 각 단과대 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선거 및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의장,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 위원장 선거가 지난 26일 마무리됐다. 지난 24일부터 26일 까지 실시된 투표결과와는 다음과 같다.

**[총대]** 최진범(영문4)군이 76.6%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90.4%, 반대 6.8%로 31대 총대의장에 당선됐다.

**[졸준위]** 노승수(화공4)군이 76.2%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93%, 반대 6.7%로 11대 졸준위장에 당선됐다.

**[사과대]** 이정진(행정3)·장원석(행정2) 조가 53.3%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90.3%, 반대 8.8%로 12대 사과대 정·부학생회장에 당선됐다.

**[경상대]** 채진석(경제통상2)·장덕선(경영2) 조가 51.6%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90.7%, 반대 7.8%로 31대 경상대 정·부학생회장에 당선됐다.

**[생자대]** 김동석(생명자원과학부3)군이 77%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89.8%, 반대 8.7%로 31대 생자대 학생회장에 당선됐다.

**[사법대]** 김희정(국교3)·정은영(수교3) 조가 68.6%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94.4%, 반대 4.8%로 31대 사법대 정·부학생회장에 당선됐다.

**[예술대]** 이재연(미술2)양이 73.5%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88.1%, 반대 8.5%로 12대 예술대 학생회장에 당선됐다.

**[야간강좌]** 이영수(전산통계3)·이승복(반도체2) 조가 51.6%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91.3% 반대 6.7%로 15대 야간강좌 정·부학생회장에 당선됐다.

한편, 총여학생회를 비롯한 불교대, 문과대, 이과대, 법과대, 공과대 등 후보 미등록 단위는 내년 3월 학생회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 4명중 1명 장학금수혜

장학과(과장=문옥래)는 98학년도 2학기에 2천6백27명에게 22억3천15만7천5백원의 교내장학금을, 교외장학금은 3백52명에게 4억4천7백38만7천5백원을 지급했다.

이는 2학기 총 등록생 중 26.52%가 장학생으로 4명중 1명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다.

## 15대 대학원총학생회 후보자 등록 2일까지

대학원총학생회(회장=박정진·정치학 박사과정 3학기) 선거관리위원회는 15대 대학원 총학생회 정·부회장 후보자 등록을 다음달 2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재학생 중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서 50인 이상 추천을 받아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투표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실시하고, 당선공고는 오는 10일 치러진다.

## 정 정

제1260호 2면 '교수회 설명회' 관련기사 중 박종원(국민윤리학)교수를 박종훈 교수로, 교수회 홈페이지 주소를 http://cbmem.dongguk.ac.kr로 바로잡습니다.



## 통일주점 ...

지난 28일 다향관 학생식당에서 전국연합신학 서울연합주점회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연방통일조국건설' 사업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이 열렸다. 한 교수가 운동에 동참하여 서명을 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 일반휴학원 접수

- 신청기간 : 98. 12. 9(수) ~ 12. 10(목) - 2일간
- 신청자격 : 98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
- 신청대상자 :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 접수장소 : 교무처 학적과(본관 3층)
- 신청서류 :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소정양식)
- 유의사항
  - 가.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기간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나. 일반휴학기간 만료후(2학기)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제적.
  - 다. 휴학연장원은 휴학기간(2학기)이 만료되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998. 11

## 교무처장

# 복학·재입학원 접수

- 복학, 재입학 원서 접수기간 : 98. 12. 7(월) ~ 8(화)
- 접수장소 : 교무처 학적과(본관3층)
- 구비서류 :
  - 가. 일반복학자 - 복학원서 1부.
  - 나. 군복학자
    - 1) 기전역자 ① 복학원서 1부.
    - ② 전역일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1부 (전역증사본불가)
  - 2) 전역예정자 ① 복학원서 1부.
  - ② 전역예정자 각서 1부. (소정양식)
- 재입학자 - 재입학 원서 1부.

1998. 11

## 교무처장

# 고시장학생 선발시험

- 일시 : 1998. 12. 18(금) 09:00 - 12:00
- 장소 : 시험당일 계산고시학사 게시판에 공고
- 대상 : 본교 재학생 및 복학생
- 원서접수기간 : 1998. 12. 9(수)~12. 16(수)(6일간, 토·일 제외)
- 접수처 : 계산고시학사 사감실(2F)
- 선발인원 : 60명(조정될 수 있음)
  - \* 각과목당 40점이상이고 평균이 60점이상인 자로서 본교 장학규정에 의거 적정학점 학점 17학점이상 취득자
- 시험과목
 

행정고시	1학년	영어, 국사
	2·3·4학년	영어, 국사, 헌법
외무고시	1학년	영어, 국사
	2·3·4학년	영어, 국사, 헌법
사법시험	1학년	외국어, 헌법
	2학년	외국어, 헌법, 민법총칙, 형법
	3·4학년	외국어, 헌법, 민법, 형법

  - \* 사법시험 외국어과목: 영어, 독일어, 일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중 택일
- 원서접수시 학생증(신분증)과 사진 1매를 지참할 것.
  - \* 복학예정자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것(휴학 전학기에 장학금을 수혜받아 등록된 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 고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필히 해당고시에 응시하여야 함.

## 고시지도위원회

# 99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 기간 : 98. 12. 9(수) ~ 12. 11(금) - 3일간
- 장소 : 교내 컴퓨터실습실
- 대상 : 98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전원
- 수강신청원 교부 및 접수 : 소속대학 교학과, 학부(과)
- 유의사항
  - 가. PC 수강신청시 교과목의 학수번호, 강좌번호, 학점, 담당교수명 등을 정확히 확인할 것.
  - 나. 본 수강신청에 의해 분반 및 폐강과목이 결정되므로 필히 기간내에 모든 재학생은 수강신청을 하기 바라며, 금반간 중 수강신청하지 않은으로 인해 추후 수강신청 정정시 인원제한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 다. 수강인원 10명이상 강좌를 신청한 재학생은 성적 상대평가제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수강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라. 학업지도교수 및 학부(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은 수강신청원 지침서 및 컴퓨터실습실에 입장할 수 있으나 반드시 지도를 받은 후 입장하도록 바람.
  - 마. 제 1학기 종합강의시간표는 소속 학부(과)에서 교부 받을 것.
  - 바. 각 대학 교학과 및 학부(과)별로 개설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비치하였으므로 수강신청시 활용하기 바람.
  - 사. 최초수강신청시 1학년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 중 일부강좌에 대해 인원제한이 되므로 수강신청시 유의바람.
  - \* 영어회화, 실용영어, 컴퓨터활용과 실습 강좌는 금반 수강신청기간중 신청 불가하며,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신청하기 바람.
  - 아. 원격수강신청을 시행하니 희망자는 다음을 참고할 것.
    - 1) 원격수강신청 : 학교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PC를 Dial-up Modem을 통해 학교 LAN에 접속하여 수강신청하는 방법
    - 2) 신청장소 : 해학관 1층 정보관리처 상담실 (문의전화 : 260-3488, 3489)
    - 3) 신청일시 : 1998. 12. 8(화)~11(금) - 4일간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강의시간표를 참조바람.

1998. 11. 30.

## 교무처장

### 보수주의 한계와 IMF 1년 논란

## ‘보수’로 그르친 세월 ‘진보’로 살리자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운영의 원리는 ‘보수주의’였다. 기존의 것을 유지하면서 새것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을 의미하는 보수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견해와 이익에 합당하지 않으면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도 견해를 듣지도 않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보수체제의 ‘위험함’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이라는 화두는 부차적인 것이 되었고 사회의 기본이인 인간들이 살아가는 기본인 ‘인간’과 ‘연대’라는 화두보다 ‘경제’와 ‘성경’이라는 단어가 소용돌이치는 사회가 된 것이다. IMF 체제가 불러온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실업자’ 생존권 보호가 아니라 ‘경제회생’을 위한 노동자, 민중에 대한 희생과 강요였다는 점에서 보수주의가 불러온 아픈 상처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이 보수주의는 운영 원리는 정치적으로 독재와 관료주의를 양산했고 경제적으로 독점재벌 체제를 구축했으며 사회적으로 정경유착의 폐해가 낳은 부패와 물질만능의 사회인식을 쌓아온 것이 사실이다.

재벌과 기득권층의 탐욕 때문에 내몰리게 된 ‘평등’과 ‘회합’의 논리, 재벌의 평

창주의적인 사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낭비적 소비구조, 결국은 IMF라는 화를 불러온 준비없는 관료집단의 안일한 사고, 이 모든 한국사회의 부정적 결과의 이유가 ‘보수적인 기능주의’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회의 지배층들이 지난 50년 동안 자신있게 내세운 ‘보수주의’의 반사회적 기능은 우리 가슴에 상처를 남긴 것이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한국사회 불황과 그에 겹쳐진 IMF 체제의 한국자본주의는 결국 노동자, 민중에게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정리해고라는 칼바람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고,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생존권의 위협은 생활 곳곳에서 노출되며 노동자, 민중은 무방비적으로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우리가 겪은 지난 1년간의 IMF체제를 불러온 기본적인 원인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사회를 이끌어 온 ‘보수적 운영 원리’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 보수적 사회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이익을 챙겨온 독점재벌이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있다.

IMF 1년을 맞아 재벌개혁을 비롯한 전

반적인 사회개혁의 절대적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회의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5대 재벌의 완강한 버팀은 재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보수정권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또 다른 반증인 것이다.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물질만능에 물들어버린 전박한 자본주의의 썩어빠진 한국사회의 곳곳에 뿌리내린 지금, 사회전반에 걸친 사회개혁이 그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노동자와 민중이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사회에 놓여 있는 심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 필요한 개혁의 주체가 바로 ‘진보’여야 한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사회발전의 전망도 밝혀줄 수 없는 현재의 상태로는 우리사회의 발전은 이루어 질 수 없다.

이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

“독점재벌로 경영권을 장악한 재벌들이 망쳐놓은 경제라면 이제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방식으로 새로운 경영의 길을 열어야 하지 않은가?”, “남북군사 대결로 술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경제발전을 위한 장기적 투자가 불가능하다면 이제 남북이 평



권영길 국민승리 21 대표

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체제와 관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은가?”,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이 더욱 살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아

니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 준비된 사회를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꿈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그것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낼 힘을 가진 진보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힘을 모아내고 민중의 지혜와 단결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다. ‘보수’의 한계, 보수적 사회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진보의 기획’ 그 기획을 세우고 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적 힘, 진보정당의 건설이 위기에 놓인 우리 사회와 경제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자, 생존권의 위협에서 노동자, 민중을 방어하고, 그들이 사회의 중심이되도록 하는 길이다.

## 사설

### 건학이념 앞에서 웃길 여미며

우리는 지금 심각한 학내갈등을 겪고 있다. 한달 동안 재단의 송석구 총장연임결정을 둘러싸고 교수회·직원노조·학생회 제 주체가 반발하였으나 최근에 와서 몇가지 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조는 교수회만의 총장선거에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학생회는 총장·이사장과의 면담 등을 조건으로 총장실 접견능성을 풀은 상태에서 학교당국과 교수회의 양자 대결구도로 압축되고 있는 듯하다.

이제 학교 문제에 가장 책임이 큰 두 집단간의 갈등국면으로 접어든 이상, 지금부터 양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 동안 학내 제 주체의 서로 다른 입장이 얽힌 혼란상태 속에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솔직히 말하면 대학인다운 격조있는 대화는 커녕 상태가 무슨 얘기를 하든 들은 적도 안하고 시큰 똥 했으며 서로 비방하고 흑색선전하기가 정치관이 무색할 정도로 난장판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 깊이 반성하고 냉정을 찾자.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스 독일과 유대인 사이에서도 모종의 대화 채널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한다. 또 남태평양제도에서 격전을 치르는 와중에서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한 비밀대화가 있었으며 그 결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이후에도 ‘천황제도’는 유지될 수 있었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있는 법이다. 하물며 적이 아닌 같은 동국의 가족으로서 서로 처한 입장과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무조건 비방하고 보자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더구나 노조와 학생회가 학교 당국과 교수회의 모습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아무리 상대방이 미워도 기본적인 품위는 지키자.

원래 ‘적(敵)’은 상대가 자기와 싸울만한 힘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 쓰는 말이다. 필적(匹敵), 대적(對敵)은 여기에서 유래하는 말이다. 싸움터에서 적을 만나면 거꾸러 뜨리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지만 마음속으로는 적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당당하게 적과 만나서 대화를 했던 것이다.

학교당국과 교수회는 일단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보고, ‘적’으로 인정하며 그에 걸맞는 예의를 지켜라. 그러면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제 사태 발생이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충격과 혼돈에서 벗어날 때도 되었다.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무조건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물리력을 통한 결적으로 끝날 경우 우리 모든 동국인은 영원히 씻지 못할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것이다. 60-70년대는 대학의 고도 성장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때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었던 타대학들보다 본교의 발전이 더디었던 뼈아픈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 원인은 일차적으로 관선이사들 초래하였던 학내 분규에 있었으며 관선이사들이 해소된 이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인해 약체 이사진이 형성되었고 그들은 외부의 압력과 바람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학교는 ‘주인이 없는 상태’로 빠져들었고 90여년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독국의 빛을 퇴색시켰다. 전 동국인이 땀땀 뭉쳐서 앞만 보고 달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우리는 내부의 갈등으로 소모전을 치렀던 것이다.

최근 수년간 본교는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막 기지개를 켜려는 참이었다. 외적으로는 본교의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고, 내적으로는 에너지를 체내에 축적하여서 바야흐로 도약하려는 이 시점에서 또다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싸우더라도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적’으로서의 예를 갖추고 게임의 법칙을 지켜야 한다. 행여 외부세력을 끌어들이려는 기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고립감을 떨쳐버리고 열린마음 긴 안목을 갖추도록 노력하자. 눈 앞의 이익만을 좇다가는 우리는 전 동국인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동국의 건학이념 앞에서 웃길 여미자.

### '99 학생회 선거 분석

## 운동권성향 대거 당선

### 학생 무관심 극복·대표자 인정 절실

지난 11월 한달 동안 진행된 전국대학의 99학년도 학생회 선거결과 운동권 성향을 가진 후보가 대거 당선돼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은 앞으로도 건재할 전망이다.

지난 27일까지 학생회 선거가 끝난 88개 대학의 선거 결과, 정파를 떠나 운동권 성향을 가진 대학이 61개 대학, 비운동권 성향의 당선자는 27개 대학에서 당선된 것으로 드러났다(전대기련 자체 집계 결과, 28일 오전 6시 현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중 한총련 민족해방계열의 후보는 본교를 비롯해 경희대, 조선대, 경북대, 영남대 등 44개 대학에서 당선됐고, 서강대, 부산대 등 17개 대학에서 민중민주계열의 후보가 당선됐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늘어난 학생운동권 후보들의 당선은 대학사회에서 학생운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학생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학생운동단입이 예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 역시 정부당국의 후보자 검거 방침이 발표되는 등 앞으로도 단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 선거 초반이었던 지난 12일 검찰은 각 대학의 총학생회선거 입후보자가 한총련 노선을 지지하거나 새로운 7기 한총련 조직을 구성할 경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 전원 구속수사 한다는 발표를 했으며, 실제로 경희대의 경우 총학 후보가 선거운동 중에 연행될 뻔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충남대 총학선거는 학교 당국의 입후보자 자격강화문제로, 단국대 천안캠퍼스 총학선거는 체대생들이 투표함을 탈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학생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학교 당국의 탄압속에서도 조선대와 경북대에서는 각각 수배중인 후보와 옥중에 있는 후보가 당선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 치러진 조선대 총학선거에서 장세호군은 지난해 특수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경찰에 의해 수배를 받아오다 도피 생활 중 이번 선거에 출마해 당선이 됐으며, 지난해 한총련대의원으로 활동하다 현재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입 혐의로 대구 회정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송영우(전



사과대 학생회장)군은 지난 19일 치러진 경북대 총학 선거 결과 당선되었다.

그러나 각각의 학교측에서는 수배와 구속상태인 학생들의 자격요건을 이유로 총학생회장 인준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학생들과의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대와 홍익대, 성신여대 등은 하부투표의 연장투표를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50%를 간신히 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본교 서울총 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현실을 단순히 학생들의 무관심으로만 돌리기에는 학생회 일꾼

들의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후에는 학생회 일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선거에서 당선된 각 대학의 후보자들은 이와 같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 또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들이 탄압의 대상이 아닌 학생들의 직접선거에 의한 대표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유철주 기자

동약론



대표자

투표 마지막날, 올해도 어김없이 두 개의 수치가 경쟁하듯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남은 시간'과 '모자란 표수'. 촌각을 다투는 경기가 진행되고 후보자들과 선거운동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모자란 표수'가 먼저 카운트다운을 끝낼 수 있도록 열을 올린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00 학생회장으로 임후보한 000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투표하셨어요? 투표하고 가세요" 이런 말들이 투표장 이곳 저곳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26일 10시30분 투표가 마감됐고, 총 유권자 과반수를 가까스로 넘겨 제31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이 선출됐다. 저조한 투표율과 단독후보라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새로운 대표자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당당하게 자격을 인정받은 것이다. 즉,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대표자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선거를 진행하고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동안, 이러러나하게도 동약 곳곳에는 '총장낙점반대', '근조 민주주의', '동약의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라는 플래카드가 휘날리고 있다.

지난달 23일, 법인 이사회의 송석구 총장 재임결정 이후 동국의 구성원들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총장재선출을 주장하며 총장낙점 반대를 외쳤고, 그런 상황속에서 여러 불행한 사태들이 발생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파장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결국 대표자가 구성원들로부터 합의되지 못한 즉,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기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아이가 반장으로 지목됐지만 다른 아이들의 표정은 그를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남대철 기자

청년진보당 창당

‘진보정당’ 드디어 닳을 올리다

낯은 정치구조 타파 · 운동진영 세대교체 이룰 터

지난 97년대선 이후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 민중의 정당을 표방하는 청년진보당(대표=최혁)이 어제(29일) 성균관대 유평회관에서 창당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는 90년 민중당 이후 처음으로 진보적 운동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진보정당이라는 점과 97년 대선에서 이미 진보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활동해오고 있는 국민승리21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의 청년진보당은 20~30대의 청년층이 당원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미 지난 3월 창당작업에 착수, 지금까지 전국에 모두 29개의 지구당을 창당했다.

이와 관련해 최혁 대표는 "보수정치와의 대결을 통해 한국의 낡은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과거 진보정당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운동진영의 세대교체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당명을 '청년진보당'으로 했다"며 "이후에는 투쟁하는 정당의 모습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진보당은 창당 하루 전인 28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새로운 연대를 향한 문화제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개최했으며,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창당대회를 갖고 종묘공원까지 행진해 '고용안정 실업해결 특별법 제정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기도 했다.

이에 최혁 대표에게 창당이념과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청년진보당의 창당이념과 지향하는 점은 무엇인지.

=진보정당이 여타의 정당과 다른 점은 사회 체계를 '계급의 대립'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피착취 근로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바탕위에 몇 가지 원칙으로 이념과 지향하는 바를 설명한다면, 첫째로 세계사적으로 존재해왔던 운동의 진보적 핵심을 계승하고 둘째, 진보정당의 이념에는 계급중심성이 견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정당은 노동자들 속에 계급적 의식과 실천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다시 재규정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향점이다.

-노동자 민중의 정당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노동자 민중의 반응은. =진보정당을 만든다는 말에 사람들이 던진 질문은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청년들만 하는거냐'라는 것이었고 또



지난 8월9일 열린 청년진보당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최혁 대표가 연설하고 있다.

하나는 '변절하지 않을 수 있느냐'였다. 후자의 질문은 변절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질문은 하나의 공통된 해답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 '청년'은 특정세대를 대상으로 한 운동이란 뜻이 아니라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저항과 투쟁'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의미이다. 그 정신을 계속 지키는 한 우리는 결코 진보정당운동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창당의 과정에서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은 우리의 열정과 패기를 신뢰했고, 실패한 진보정당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넘어서야 할 운동의 세대교체에 동의했다.

-이미 지난 97년 건설된 국민승리21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우선 청년진보당은 국민승리21과 역사가 다르다. 청년진보당은 지난 시기 진보정당운동과 민중후보운동의 긍정적인 역사를 계승한다. 둘째, '투쟁의 공간'에서 대중을 만나고 획득하는 것' 이것이 청년진보당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승리21과의 실제적인 차이는 앞으로 정당으로서의 실천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한편 차이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인 '대동단결론'에 우리는 반대한다. 청년진보당은 국민승리21에 비해 숫적으로 소수이다. 그러나 수의 문제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1+1의 결과 항상 2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경쟁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현 제도권 정치에 대한 생각은. =김대중 정권에 대한 일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변형된 사상전향서에 지나지 않는 준법서약서와, 여전히 견제할 국가보안법, 보수정치권의 당리당락에 얽매인 이진투구에 휩싸인 정치관계법 개혁의 실종 등 한국사회 민주주의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당리당락에 얽매어 추잡한 이진투구만 입는 기존 보수정당들은 재벌의 이익을 옹호하고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데 이해를 같이 하는 정치세력일 뿐이다. 진보적 정치운동을 통해 왜곡된 사회의 모순을 단정하여 드러내는 것,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수정치에 맞서 싸울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청년진보당의 임무이다.

-향후 활동 계획은. =창당직후 청년진보당의 가장 큰 사업은 '고용안정 1천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한 '고용안정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될 것이다. 진보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과 정치관계법 역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이 존재하고 정치관계법 역시 보수정치 사이의 아합으로 진보진영에게 더 높은 장벽을 칠 수도 있다. 이러한 외적 환경의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제기하고 싸워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유철주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국가보안법, 지난 50년으로 충분”

정치탄압 수단 등으로 악용 ... 폐지돼야 마땅

오는 12월 1일이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0주년이 된다. 이에 본사에서 는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폐지 당위성에 대해 두번에 걸쳐 연재한다. 1. 국가보안법의 역사 2.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국가보안법 폐지론, 그것은 제정 당시부터 반대론으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국회 제1회 속기록에 그 증거는 뚜렷히 남아 있다. "국가보안법은 포악무도한 일제 침략주의의 흉검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안유지법과 똑같은 비민주적 제국주의의 잔재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김육주 의원의 말이다. "속담에 고양이 쥐를 못잡고 씨앗을 잡는다는 격으로 이 법률을 발표하고 나면 안결될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조현영 의원이 발언했다. 조국현 의원의 반대론 역시 선견지명이다. "우리는 공산당을 탄압하고자 만들자고 했지 막연히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가지고 3천만 민중이, 무고한 백성들이 걸리는 이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신이 죄를 짓고 말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외침은 물론 그 정치적 악용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보다는 국가를 우선하여 보호하겠다는 정치행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은 이론적으로도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헌법은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러한 헌법의 평화적 통일선언에 배치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제6공화국의 경우 집권하면서 내세운 북방정책과 같은 것은 국가보안법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14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을 통해 현재의 일종의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구성요건은 행위자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위를 해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형식의 범죄를 형법에서는 위험범이라 한다. 즉,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침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의 규정 형식이나 재판절차에서의 운용관행을 보면 구체적 위법범이 아닌 추상적 위법범으로 다루고 있다. 국가적 법익의 침해가능성이 추상적으로 존재해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위험'과 '침해' 사이에는 '예측'이 개재될 수밖에 없고, 그 '예측' 때문에 국가기관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인권침해, 특히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빈발한다.

국가보안법은 그 취지를 아무리 선의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형사정책적 명목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국가보호를 위해 실제로 효율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은 항상 최상의 정치적 탄압의 무기로 사용되었다.

그 광범위한 적용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사례를 특별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한 번 적용되면 인간에게 가혹할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까지 있지 않은가. "수사기관에서 한 대 맞고 나온 사람은 좌로 기울고, 두 대 맞고 나온 사람은 진짜 빨갱이가 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그 남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국가안보를 저해한다는 역설적 주장까지 나온다.

국가보안법은 법체계상으로도 부적절하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고 해서 국가가 보호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국가보호의 필요성은 형법의 내란·외환죄 등의 규정으로 충분하다.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이 있음에도 굳이 특별법의 유지를 고집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든든하고 유효적절한 무기가 되고 있는가를 반증해 주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론상의 문제나 운동권에 한정된 부분적 주장에 머물지 않는다. 며칠전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찬성하고 있다. 법학교수의 99%, 변호사의 92.9%의 찬성률은 국가보안법의 이론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리고 일반시민의 78%의 찬성률은 국가보안법의 운명을 결정해 준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지금의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발불일 곳이 없다. 국민의 성숙한 민주법치국가적 감수성이 편의적 정치행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펼쳐는 인권단체들의 행동표어는 이렇다. '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

차 병 직 변호사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제3의 길'은 무엇인가

얼마전 영국의 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방한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제3의 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팽창으로 전세계 민중의 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토니 블레어에 의해 주창되고 있는 제3의 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에서부터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것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이에 따라 본면에서는 제3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편집자

# '제3의 길'은 '오른쪽'으로 굽어있다

## 정책시행 '대처리즘 아류'에 불과... 한국사회 현실적 적용은 무리

영국에서는 노동당이 18년만에 집권하였고, 그로부터 몇 달 뒤 프랑스에서는 조스퐁 사회주의 내각이 들어섰다. 그리고 최근에는 독일 사민당이 16년만에 집권하였다. 유럽의 중심국가에서 좌파 집권을 보는 우리는 '유럽 사회주의 내부에 뭔가 심상치 않은 변화'를 즐겁게 기대하게 된다. 때맞춰 토니 블레어의 정책고문으로 알려져 있는 앤서니 기든스의 방한(訪韓)으로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을 막론하고, '제3의 길'은 유행어로 번지고 있다. 우리가 기대를 거는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지난 10여 년간 정치적 공명영역을 지배해 온 미국중심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보수주의 담론으로부터의 탈출로 이해하려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제3의 길이 "모든 낡은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낭만적인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다.

어느 쪽에서 바라보든 간에 역사적·문화적으로 우리와는 거리가 먼 남의 나라 이야기다. 왜냐하면 제3의 길은 좌파와 우

파 사이를 수평적으로 가로지르는 중간의 의미가 아니라, 층위가 다른 두 좌파적 노선을 가로지르는 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블레어에 의하면 제3의 길은 "중도좌파적 사고에 흐르고 있는 두 가지 사상적 조류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 이론으로서의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겠지만, 집권을 고사하고 중도좌파적 진보정당이 의회에 뿌리내린 적도 없고, 좌파적 이념이 현실정치에 작용한 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낯선 정치문화로부터 나오는 것 일 뿐이다.

그러면 블레어에 의해 새롭게 건설된 영국의 '신노동당'의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자. 80년대 말부터 영국 노동당 정책은 너무 많이 우경화하였다. 예를 들자면, 자원배분의 핵심기제로서 시장의 역할 강조, 완전고용과 고용지출의 확대라는 케인즈식의 총수요관리 관점은 폐기되고 대처식의 공급경제전략이 수용되었으며, 반인플레이션, 복지지출 억제 등 대처의 경제정책은 수정없이 받아들여졌다. 블레어는 기회를 때마다 "케인즈주의와 완전고용이 노동당의 목표가 될 수 없으며, 노동당의 경제목표는 낮은 인플레이션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일"을 천명하였고, 또한 고용증가를 위해 공급경제학에 의존할 것임을 거듭 확인시켰다. 더욱이 좌파정책의 핵심이라는 복지와 사회정의, 국가개입주의를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블레어의 신노동당 구상은 "온건한 신자유주의", "대처리즘의 아류"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토니 블레어가 지난 9월 28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선언문 형식의 '제3의 길'에 의하면 '유럽 진보정당들의 공유 가치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새로운 방식의 국제협력력을 이끌어내는 기술을 익히며, 진보와 정의의 새로운 동맹을 통해 21세기 역동적인 사회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신자유주의와 화해를 통한 이런 마스터플랜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한번도 진정한 좌파는 없었던 영국의 미래가 "역동적인 사회민주주

의 사회'로의 새로운 길을 가게 될지는 의문이다.

한국에서도 제3의 길의 적용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다. 제3의 길은 '개혁적-신자유주의'로 이해하고, DJ정부가 제3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DJ정부의 국정지표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론"은 소위 블레어와 기든스가 말하는 좌파적 지평 내에서의 새로운 방향설정-신자유주의에 대항한 사민주의의 새로운 길-이라기 보다는 실패한 권위주의적 경제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펴면서 이념은 제3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기든스가 제3의 길을 말할 때, 그는 분명 '현대 사회민주주의의 부활과 재건'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정부의 이념적 노선은 제3의 길이 아니라 개혁적-신자유주의이다.

제3의 길을 통하여 한국의 보수주의적 정책을 견제하고 사회민주주의적 노선을 강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교조적 좌파를 순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어떤 사람들은 제3의 길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제3의 길은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확대이고, 노동·복지·복합 문제 등은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이는 여전히 '현실적 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 이념'에 근거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시민사회의 경험이 없는 우리로서는 다양한 시민운동을 통해서 '공정성', '신뢰', '시민적 의무' 등 시민사회의 기초적인 덕목을 확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먼저이고, 제3의 길은 그 다음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중적, 시민적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민운동의 조직이 중요하다.

구승희  
문과대 인문학부 교수

강명세(세종연구소 연구위원)씨에게 듣는 '제3의 길'

## "신자유주의의 보완적 기능 수행"

무조건적 이념수용 경계해야

- '제3의 길'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지금까지의 현대사회에서 '제1의 길'이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이고 '제2의 길'이 사회주의라면 '제3의 길'은 바로 1과 2가 아닌 새로운 노선의 모색일 것이다. 현재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각종 기술의 혁신, 사회의 민주화경향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념이 바로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제3의 길'이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퍼지고 있는 것으로 영국의 블레어 총리, 독일의 슈뢰더 총리, 프랑스의 조스퐁 총리 등이 대표자들이다.

- '제3의 길'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발상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길'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물론 '제3의 길'이라는 것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개념들의 연장선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C초기 산업자본주의사회에서도 당시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현재와 비슷한 이념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좌파화자들은 '제3의 길'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두가지 체계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없다. '제3의 길'의 배경에는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의 실패와 복지국가의 축소 등 신자유주의적인 요소들이 적지 않다. 이 이념 또한 기존의 체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하나의 구조조정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 그렇다면 '제3의 길'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보는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보완작용은 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의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 등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만들어 낸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바로 모든 나라의 '세계적 기준화', 다시 말해 획일적인 하나의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다.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국가의 복지를 축소하는 등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에 맞추는 것이다. 현재의 흐름이 이렇다 보니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바로 '제3의 길'이라는 대안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 IMF체제이후의 한국사회 또한 신자유주의의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제3의 길'은 적용이 가능한가.

=서구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산업화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또한 우리의 경제는 그 짧은 시간에 '관료'와 '재벌'이라는 두 축에 의해 만들어져 왔고 이것이 바로 IMF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부 중심적 경제 여건속에서 사회 전반의 민주화는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얼마 전 조선일보와 최장집 교수의 이른바 '사상논쟁'에서 우리는 사회에서의 사상의 자유가 얼마나 협소한지 그 예를 찾을 수 있었다. 우리사회에서의 '제3의 길'은 바로 이렇게 비좁은 사상과 사회민주주의의 폭이 넓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또한 유럽과 우리사회는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무조건적인 이념의 수용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다.

유철주 기자



강명세 연구위원



### '제3의 길' 신자유주의 대안인가

슈뢰더 독일 총리

블레어 영국 총리

앤서니 기든스

(사진=한겨레 신문)

### 관련 책 소개

#### 사빠띠스따

-해리클리버 지음



1980년대 초 재정 위기에 허덕이던 멕시코는 국민경제를 개방하고, 수출의존 성장을 추진하는 등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펼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 정책과 글

로벌 자본의 침투는 멕시코 소농민을 궁핍으로 몰아 넣었고 사회가 양극화 되는 모순된 구조를 형성, 급기야 1994년 1월 1일 농민과 원주민으로 구성된 사빠띠스따 민족해방군이 '반(反)신자유주의'라는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렸다.

사빠띠스따의 일원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자율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 해리 클리버(미국 텍사스대학 정치경제학) 교수의 정치논문 모음집인 이 책은 1994년 1월 1일 멕시코 차야파스주에서 봉기한 사빠띠스따 투쟁의 성격과 의미, 이의 영향 등을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자본과의 고리를 단절하고 공동의 연대를 달성하고자 하는지 자신들의 주장(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계전역에 알리기 위해 어떻게 사이버전(cyberwar)을 펼쳤는지를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지배형식에 맞서, 저개발국의 자본주의적 개발논리를 벗어나 그들만의 자율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자치권 획득을 위해 투쟁의 전선에 뛰어든 '사빠띠스따'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앤서니 기든스 지음



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복지국가 등 이 책의 저자 앤서니 기든스는 세월의 변화에 따라 기존 이데올로기들이 빛바랜 것이 되었다고 말

했다.

대표적으로 이책에서는 보수주의는 급진화되고 사회주의는 오히려 보수화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였고, 급진주의를 포함한 현대의 보수주의인 신자유주의가 '시장의 세계화'를 바탕으로 세계 질서를 급진적으로 '개혁'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진보주의'의 표본이었던 사회주의는 세계의 흐름에 따르지 못한채 붕괴하거나 기존체제를 옹호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복지국가에서는 남세자의 반란과

하층계급의 존재, 그리고 복지국가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남성·가장 노동이 사라짐으로 복지국가의 성공이 복지국가를 침식시키는 모순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기든스는 좌와 우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와 제도를 제안한다.

대화정치, 생활정치 등이 그것이며 또한 인류가 추구해야 할 유토피아적 현실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적 빈곤과의 전쟁, 환경파괴의 구제 전제권력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강제력과 폭력의 역할 감소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책소개

## 동경의 젊은이들

일본인의 시선으로 본 일본 젊은이들을 적나라하게 소개한 책.  
일본이라는 나라속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왕국 동경과 동경에 사는 신세대들의 모습을 대담하고 솔직하게 그려내고 있다. 마치 계급과도 같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일본 신세대의 종류와 작가가 바라보는 그들에 대한 평가를 인터뷰 형식을 빌어 알려준다.  
미도리카와 아에코가 짓고 본교 출신의 통역가이자 번역가인 김용수씨가 옮김.  
도서출판 느린, 정가7천원.

## 천재를 꿈꾸며 고뇌하는 젊음에게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알려진 괴테의 작품을 독문학 박사 두행숙씨가 '젊은 베르테르의 고뇌'라는 이름으로 평역한 작품.  
기존의 이루지 못한 사람에 대한 한 청년의 좌절에 초점을 맞춰 연애소설처럼 인식돼온 괴테의 작품을 젊음의 열정과 전제가 되고자 한 고뇌에 무게를 두고 서술하고 있다.  
장면 장면의 보다 쉬운 공감을 위해 삽화와 괴테의 시들을 함께 수록했다. 그리고 책 말미에는 평역자 두행숙씨의 에세이 '천재여, 눈을 떠라, 새로운 문을 열라'를 실어서 천재사상의 의미와 괴테의 천재정신이 작품에 어떻게 녹아있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플랫미디어, 정가1만원.

## 개달음의 꽃

한국현대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17명 비구니들의 수행담과 삶의 궤적을 문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재구성한 책.  
본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주간불교신문사 편집デスク로 일하고 있는 하춘생씨가 지은 책으로 비구니 스님만을 다룬 책으로는 최후이다. 17명의 비구니 스님들의 입산계기와 수행과정, 열반에 이르기까지를 잔잔한 어조로 그려내고 있다.  
도서출판 아래, 정가7천 8백원.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화두는 '변화'라고들 한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컴퓨터, 특히 네트워크의 출현은 지역적인 특성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으며, 하나가 된 세계는 극심한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가기 위하여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기존의 고정관념이란 약 200여 년간 우리가 경험했던 산업사회의 유산으로서 표준화·대량화로 특징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시공이 초월된 사이버 스페이스로 인식되어지는 정보화 사회는 다양화 및 특화를 지향하고 있다.  
사고의 전환이란 기존관념을 버리고 자기

내면을 깊숙이 성찰하여 타인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강점을 특화할 수 있는 근본 바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질 문명으로 대표되는 산업사회에서부터 탈피하여 정보화사회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물질계가 아닌 정신계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등에 의하여 더욱 기계문화화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겠지만 이는 정보화를 문화가 아닌 기술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정보기술의 특징 중에 하나는 투명성이다. 즉 기술을 개발하는 소수의 전문가 이외에는 정보기술을 인식하지 못하며 정보기술의 존재여부도 알 필

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마우스만 클릭하는 것 이외에는 복잡한 인터넷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과도 같다.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는 컴퓨터를 공부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정보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할 것이며 이에 따라 다양화를 추구하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변화를 위한 자기 성찰이라 할 수 있다.  
정보 선진국인 미국에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동양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를 우리는 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동양은 전통적으로 불교를 바탕으로 한 인문학으로부터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바탕에서 최근 정보통신 우수대학으로 지정될 만큼 21세기를 지향하는 인프라도 구축되고 있으니 우리는 기술과 문화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 '선과 인간' 등과 같이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교양과목의 수강생이 늘어나는 현상은 변화의 중심에 있는 동국인이 우리의 전통에서부터 변화의 실태를 찾아가는 올바른 행보를 보는 것 같아 득직한 생각이 든다.



이종욱  
경상대  
정보관리학과 교수

## 언론노련이 선정한 좋은 책 30권

### 상업성에 물든 독서풍토를 거부한다

올 한 해 우리는 과연 몇권의 책을 읽었을까?  
지난 11월 16일 언론노동조합연맹(이하 언론노련)은 '올해의 좋은 책 30권'을 선정·발표했다. 서울지역 출판노동자들이 가맹되어 있는 언론노련은 93년부터 매년 아동, 문학, 역사,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교양·예술 등 6개분야에 걸쳐 좋은 책 30권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주요 단행본 출판사와 출판·서점 관계자들의 1차 추천을 받고 1차로 추천된 도서를 중심으로 주요 일간지 출판담당 기자, 단행본 출판사 편집책임자, 서점 홍보책임자의 2차 추천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 추천 도서들은 일반 베스트셀러나 흥미위주의 책들이 가진 상업성을 지양하고 있어 건강한 교양과 전문성 함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언론노련 부위원장 박광오씨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이며 상업성에 물든

베스트셀러 중심의 독서문화가 지배적인 오늘날, 좋은 책 30권이 독서풍토를 양자로 전환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또한 언론노련은 선정도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교보문고나 종로서적과 같은 대형서점에 '추천도서 30권 독립부스'를 설치해 놓았다. 그러나 서점 관계자는 "일반시민들이 한 번쯤 읽어보실만한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이 일반 서점의 독립부스에 설치·판매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 그런지 사람들의 호응도는 그다지 않다"고 한다.  
모 방송국에서 실시한 통계에 따르면 일년 중 독서에 가장 적합한 계절이라는 가을에 실제로는 독서율이 가장 저조하다고 한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들 하고 책속에서 세상을 본다기도 한다. 올해의 좋은 책 30권을 통해서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보다 건전한 독서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최은진 기자

부 문	서 명	저 자	출 판 사	부 문	서 명	저 자	출 판 사
이 동	고구려 사람들은 왜 벽화를 그렸나?	전호태	다섯수레	세계화의 빛	한스 피터 미르턴	영림가디날	
	내가 처음 쓴 일기 오소리네 집 꽃밭	김포초등학교 12	보리출판사		해럴드 슈만	창작과 비평사	
문 학	아빠의 아들	권장성	갈렷아린이	일본, 허울뿐인 풍요	가번 막코믹	창작과 비평사	
	엄이, 난 이 옷이 좋아요	노경실	시공사	희화와 우화를 넘어서	한스나 기르스	한울	
역 사	하늘로 날아간 집요리	권문덕	재미마주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	스티븐 호킹	개치	
	젊은 시술	이상권	창작과 비평사	도도의 노래(전권)	테이비드 뮐렌	푸른숲	
문 학	그렇다면 도로	한강	문학동네	비대를 건너지는 달팽이	권오길	지성사	
	눈을 감고 가시오	박지원	학교재	다불어 숲 1,2	신영복	중앙 M&B	
역 사	봄날(전권)	임철우	문학과 지성사	사회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우한	실천문학사	
	태오의 여행	카트린 클레망	동문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명문화	허동화	현암사	
시 회/과학	남·북 역사학의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사	우리 문화의 황금기 전성시대	최완수 외	돌베개	
	17가지 정점	한국역사연구회	창년사	저 친구들하고 인사하십니까?	조병준	그린비	
시 회/과학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이화	한림사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김우명 외	학교재	
	한국사 이야기	루스 밀그랜	황금가지	한국인에게 문해는 있는가	최준식	세계잡	
시 회/과학	공정여 잘 있거라	미셀 초스도스키	당대	희생양	르네 지리노	민음사	
	빈곤의 세계화	미셀 초스도스키	당대				

제3회 인권영화제

## 인권탄압에 대항하는 당당한 외침

### 참다운 인권의 중요성 깨닫는 자리 마련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영화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 1, 2회 때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3회를 준비하는 인권영화제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를 비롯 인권운동사랑방, 본교 총학생회 등 여러 단체들이 모여 5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제 3회 인권영화제는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본교 학술문화관에서 치러진다. '아반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라는 부제 아래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에는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를 비롯한 10여명의 집행위원들이 시사회를 거쳐 선정된 영화가 상영되는데, 이것들 모두 예전과 다름없이 사진실의를 거부한 작품들이다.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서 엄연하게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고 있는 사진검열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에 영화제의 탄압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오�히러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다"라며 본교 총학생회 측은 말했다. 게다가 영상매체물에 표현의 자유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영사기에 날개를 달아준' 인권영화제의 캐릭터는 이러한 의지를 한층 더 확고히 보여준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다국적 기업인 맥도날드의 부적절한 판매행위와 생산과정의 처부를 밝히고 있는 '맥도날드 망신당하다', 만델라 정권이후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를 다룬 '케리와 루이스', 종신집권을 꿈꾸는 세상의 모든 독재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담은 '체스' 등 30여편의 영화가 상영되는데, 특히 노동자들의 투쟁과정을 그린 '전진'과 '22일간의 고백' 등 2편의 우리나라 작품이 상영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30여편의 영화 중 대부분의 영화가 다큐멘터리여서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에서 재미나 흥미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자세로 영화를 보아야 할 것"이라며 총학생회 문화국장 박찬정(수교4)군은 인권영화제 보는 법(?)을 전했다.  
영화 상영 이외에도 행사기간에는 대

인지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사진전시회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움, 각종 퀴즈대회가 있을 예정이며, 또한 안양, 수원, 원주, 청주 등의 전국 주요 10여개 도시에서 지역영화제가 치러진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과 인권대통령이라고 자처하는 현 정권아래서 진행되는 이번 제 3회 인권 영화제는 그 어느때 보다는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 인권영화제가 없는 이상적인 나라, '인권'이라는 단어가 유별난 것이 아닌 그저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새날을 기대해본다.  
박영실 기자

제3회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될 '5월 광장 어머니들'

# 영상매체비평

## - 영화편 '아름다운 시절'

“아름다운 시절은 묻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보라고”



그때는 과연 '아름다운 시절'이었을까? 기억의 힘은 우리를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어떤 삶도 과거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그 과거라

는 것은 결국, 우리들 현재의 삶이 커져서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종화작용 앞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뒤엉킨 삶을 살아가게 된다.

195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절'에서 이광모 감독은 보기 드문 작가주의 열정으로 상업적 감각의 침투를 철저히 차단한 채,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 속에는 우리 모두의 상처가 담겨 있

다. 우리에게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해도, 그것은 현대사의 질곡을 거쳐온 한국인들의 집단무의식에 원형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처이기 때문에 누구나 깊은 울림과 반향을 받게 된다.

미군 부대에서 일하면서 물자를 빼돌렸다가 쫓겨나는 아버지, 아이를 임신하고 미군에게서 버림받는 누나(성민이네), 의용군으로 끌려 가서 생사를 모르는 아버지, 잃어버린 빨래를 변상하는 대신 미군과 정사를 갖는 어머니(창희네). 이 두 가정을 축으로 영화는 전개되지만 그들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며 누나이다. 감독은 관객들의 감정 이입을 유도하기보다는 그 시절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롱 쇼트와 롱 테이크로 영화를 끌고 간다. '아름다운 시절'의 완고한 작가주의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감정의 짜깁기가 묻어나지 않는 쇼트, 프레임 안의 인물들을 바라보는 카메라의 냉정한 시선은 관객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 사고를 가능하게 만든다.

미군과 한국 여자들의 정사가 이루어지는 낯은 방아간, 그곳은 타락한 세상의 축소판이다.

아이들이 몰려 바라보는 흙벽의 구멍이 아말모 아직 오염되지 않은 순수 상태의 관객을 영화 속으로 끌고 가는 원초적 힘이다. 아이들이 구멍의 틈새를 통해 방아간 속에서 일어나는 세계의 더러움을 목

격하듯이, 관객들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이 세계의 추악함을 영화라는 구멍을 통해 들여다본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세상의 비극적 본질을 목격해버린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속에 뛰어들어 같이 혼탁해지던가, 감싸안고 정화하든가, 혹은 버리고 떠나는 것 뿐이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름다운 시절'은 그렇게 묻고 있다. 다만 지나간 기억으로서 우리의 현대사를 되돌려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보라고, 영화는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재봉  
영화평론가

이종갑(순국선열 유족회 회장)씨와 서대문형무소를 다녀와서

# 그곳에 가면 항일운동의 숨소리가 들린다

## 역사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기대...민족정기 되새기는 계기돼야

### 들어가기

11월 27일, 서대문형무소를 동행 취재 하기로 약속한 날이었는데 새벽부터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취재장소가 아이이고, 게다가 동행해줄 분이 70이 넘는 어른이라 혹시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약속장소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설 때쯤 하늘이 맑게 개었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서 내려 4번 출구로 나와 오른쪽, 약속 장소가 있는 독립관이 바로 보였다. 독립관은 순국선열들의 위패를 모셔 놓은 곳으로, 건물 아래층에 바로 그 분이 회장으로 있는 순국선열유족회 사무실이 있다.

이종갑(74세) 회장.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는 우선 그의 할아버지 얘기를 꺼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야. 할아버님은 초기에 의병운동을 하셨어. 이인영이라고,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한말에 의병을 일으켰지. 전국 의병 총대장으로 활약을 했는데, 성공을 못하셨어"라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며, 금고인 듯한 곳에서 종이 한 묶음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이게 뭘 아냐? 바로 우리 할아버님이 경성재판소에서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그 때의 판결문이야, 그리고 여기 서대문 형무소 그 때는 경성감옥 있었는데 여기에서 교수형을 당하셨어"

### 역사의 현장

사무실을 나와 독립관 위쪽에 위치한 서대문형무소 쪽으로 함께 걸여갔다. 2-3분 걸여가니 빨간 담장이 보였다. 그 안으로 들어가자 마자 제일 처음



볼 수 있는 것은 흰 건물의 서대문형무소역사전시관이다. 일제시대 보안과 청사였던 이곳은 고문과 취조가 주로 행해졌던 곳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형무소가 처음 들어섰던 1908년부터 해방해인

45년까지의 이국 역사를 한 눈에 전시해 놓은 하나의 전시장이다. 1, 2층에는 서대문형무소의 역사와 옥중 생활 등을, 지하에는 임시구금실과 고문실을 복원, 잔혹한 고문모습들을 문헌과 고증을 통해 재현해 놓았다. "여기가 바로 우리 할아버님이 고문을 당한 곳이야"라며 그는 씩씩한 표정을 지었다.

어두컴컴한 지하 전시실을 빠져나왔을 때, 한 눈에 들어오는 빨간 벽돌의 옥사는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옥사안으로 들어가니 묘한 기분과 냉랭함이 온 몸을 감쌌다.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무서울 정도였다. 난방시설은 없었

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오히려 되물었다. "난방 시설이라고? 그러면 동사자나 몸슬병이 그리 많이 생겼겠어? 게다가 이불도 2명에 1장 꼴밖에 안되었는데" 감방안에는 번기통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 교도관으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로는 감방안에서 변을 보고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냄새가 사람을 질식시킬 정도였다고 한다. 이것 또한 하나의 고문이었던 셈이다.

옥사 뒤쪽으로는 나병이나 전염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던 나병사와 갇혀 있던 사람들이 단체 목욕을 하던 야외목욕탕, 빨래터 등이 있었다. 그 빨래터에는 아직도 물이 남아있어 당시 빨래터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비유되는 비둘기 몇마리가 날라와 앉아있었다. "순국선열유족회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조상들 중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사람들의 후손들이 모임을 갖다가 유족회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어. 할아버님 덕분에 유족이 된 거지. 그래서 그 분들의 민족정기를 이어받아 바로 세워야겠다는 목적 아래 힘을 없지만 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해서 조직한 것이야. 순국이라는 월간지 발간도 하게 된 것이고" 이종갑 회장에게 순국선열유족회의 조직과정을 듣다 보니 어느새 추모비 앞에까지 와 있었다.

추모비 앞에는 고등학생인 듯한 몇 명의 남학생이 서 있었다. 그들은 추모비에 써 있던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다가 '여기 이인영도 있다'라는 말을 했다.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모양이다. 괜히 그의 손자와 함께 있던 기자는 우물

한 생각이 들었으나, 동시에 어린 학생들이 이인영의 병장도 아닌 그냥 이인영이라고 말했음을 인식했다. 누군가 자기의 할아버지 이름을 아무런 존경없이 부른다면 어떻게? 그순간 이종갑 회장을 쳐다보았으나, 못들었는지 아무말없이 그는 "여기 우리 할아버지도 있네"라며 '이인영'이라는 이름을 손으로 가르키기만 했다.

그러는 사이 다다른 곳은 사형장. 끊임없이 서대문 형무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던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기에 오면 의분에 찬 감이 항상 들어. 할아버님 뿐만 아니라 같이 싸우다가 여기에서 처형된 동지나 부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단지 기자 개인의 느낌이었을까? 사형장은 을씨년스러웠다. "이곳에서 우리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야" 이 회장은 교수형에 쓰이던 긴 밧줄이 내려와 있는 사형장안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만 나가자'라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 독립운동 중심지로서 교육의 장

서대문형무소를 한바퀴 둘러본 후 그는 사형장 뒤쪽으로 높이 세워져 있는 아파트를 가리켰다. "이 곳은 독립운동의 중심지로서 민족의 성지가 되어야



할" 감옥이 독립운동의 중심지라고? 그의 논리는 이렇었다. 일제시대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붙잡히면 이곳 서대문형무소(당시 경성감옥)로 왔다. 그러나 그들은 심한 고문을 당해 육사를 하거나 사형을 당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중심

지라고 서슴없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아파트가 있는 저 곳도 사실은 형무소 자리였거든. 그런데 해방후 불허를 받거나 해서 개인소유가 되어 버렸지. 이곳이 지적 여건 등이 편리하니까 주민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집을 지은 거야" 그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다. "이런 곳은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역사관 개관이후에 유치원생을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관람을 온다고 하던데요?" "바람직한 현상이야. 젊은 학생들이 많이 와서 보고 가야해. 우리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돼지" 취재를 마친후 그에게 동행해 준데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기차는 한바퀴 더 돌아볼 생각으로 형무소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 때 현직 교도관 한 명이 "유관순 곶이라고 들어봤어?"라며 다가왔다. "아니요" 그는 역사전시관 왼쪽에 자리잡고 있는 지하옥사를 가리키며, "92년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인데, 이 아래에 전시관과 지하옥사를 연결해 주는 통로가 있어"라며 전시관 지하로 내려와보라고 했다.

"고문실에서 전기 고문이나 바늘팔로 손톱아래 찌르기 등의 갖은 고문을 다 당한 후 이 지하 굴을 통해 감옥으로 이동하는 과정이야" 곶은 감쪽같으며, 높이는 허리를 굽으려야만 이동을 할 수 있는 정도였다.

굴 이외에 또 다른 어둠이 있었다. 막방이라는 곳인데, 햇빛 하나 들지 않고,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으로 이곳에서는 아무리 크게 독립만세를 외쳐도 밖에서는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 남아있는 과제

설명을 들은 후 그와 함께 형무소내를 걸었다. 잔디가 자라고 있었고, 바다에는 빨간 벽돌이 깔려 있었다. "이 벽돌도 잘 밟아야 돼. 독립투사들의 혼이 담긴 것이야. 독립투사들이 구워서 만든 벽돌이거든."

그리고 제 9옥사를 가리키며 "여기가 김대중 대통령 이 옥실이 한 건물이네"라고 넌즈시 말을 꺼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양심수시절 지냈던 바로 그 건물말이다. 긴 시간의 취재를 마치고, 형무소 밖으로 나왔다. 마지막 교도관에게 던진 "여기가 김대중 대통령이 옥살이 한 건물이야"라는 말이 귓가에 맴돈다. 일제에 항

거한 애국지사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08년부터 45년까지의 역사를 복원한 것처럼, 역시 암울했던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 애썼던 사람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45년후 87년까지의 역사도 복원해야 될 것이라는 과제를 던져 준 것만 같다.

박영실 기자

# 자아인식 라틴어

## 학교 안에서

### 연극영상학부 졸업영화제

연극영상학부는 '98학년도 졸업영화제를 개최한다. 임팩트 겸임 교수의 지도아래 준비된 이번 영화제에서는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교수가 되는 법', '미쁨의 옷' 등 총 11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이번엔 출판된 작품들을 살펴보면, 액션, 무협, SF 등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다루고 있어 기존에 '학생영화는 천편일률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깨 것이라고.

하루에 2회씩 상영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볼 수 있다. 또한 상영 후에는 연출자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오는 3일까지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평일 오후 5시, 7시, 토·일요일 오후 3시, 5시.

## 학교 밖에서

### 미술학부 졸업작품전

미술학부 50명의 졸업예정자들이 대학 4년간 갖고 닦은 기량을 펼친다. 미술학부 졸업작품전이 바로 그것.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화, 불교미술, 서양화, 조소 4분야에서 총 50편의 작품이 전시되는데, 각각의 작품에서 독특한 개성을 맛볼 수 있다. 내일(1일)까지 공평아트센터 1층에서.

### 98 열린 영화제

독립영화협회의회는 단편·독립 영화의 대중적 이해와 참여를 위해 98 열린 영화제를 개최한다. 이 영화제는 서울지역 구민회관을 중심으로 서울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건강한 문화향유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모든 상영작품은 공모와 추천에 의해 수급된 영화를 집행위원들이 선정한 것.

다음달 30일까지 구민회관에서 오후 3시 6시 장소문의 237-0334.

### 윤도현밴드 98 겨울 라이브 콘서트

한국록의 새지평을 열어나 윤도현 밴드가 98년도를 총결산하는 라이브공연을 펼친다. 이번 라이브공연은 12월의 서정과 어울리는 발라드모음의 인퍼로그드 코너와 한국록 다시 부르기 코너 등을 마련했으며, 결실학생을 위한 기금마련행사도 진행된다.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문의 및 예약 3675-3429.

## 메아리

### 술의 미학

▲한 남자가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다. 악마가 다가와서 "포도나무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 남자는 친절하게 "단맛과 신맛이 나는 열매를 맺는 나무다. 열매를 발효시키면 술이 되고 사람이 술을 마시면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말했다. 악마는 포도나무 밑에 슬며시 양, 사자, 돼지, 원숭이의 피를 뿌렸다. 그때부터 사람이 술 한 잔을 마시면 양처럼 순해지고, 두 잔을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세 잔을 마시면 돼지처럼 추잡해지고, 네 잔을 마시면

원숭이처럼 떠들게 된다는 설화가 있다. ▲술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출현했고, 오랜 세월동안 인류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 오래 전부터 술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 좀 더 용이하게 하거나,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데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인간이 언제부터 술을 마시왔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술의 기원으로 아주 옛날 깊은 산속의 원숭이가 빚은 꿀알 예화로 등장한다. 바위가 움푹 팬 곳이나 나무의 구멍 속에 원숭이가 저장해 둔 과실이

발효한 것을 인간이 먹어본 결과 맛이 좋아 만들었을 것이라는 설이다. 최초로 한국 역사에 술에 관해 기록된 것은 삼국사기로서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의 건국담 속에 나온다. 천제의 아들 해모수가 연못가에서 하백의 3차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 수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뒤 큰말 유희와 인연을 맺어 주몽을 낳았다는 설화가 그것이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이익이 되지만 도리어 파다한 폭음을 하면 간경화, 알콜중독 심지어 죽음에 다다르게 한다.

IMF시대이후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잠시나마 실직이나 명예퇴직 등의 고민을 잊고 싶었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일 것이다. 대하 또한 마찬가지다. 취업경쟁과 여러 스트레스 요인으로 '술취한 상이탑'이라는 말을 넣고 있다. 술은 단지 술일뿐 삶을 바꿀 수 있는 요술램프(?)가 아니다. 끈끈한 정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한 매개체이자 하나의 문화수가 바로 술이다. 현실을 망각한 채 술에 취한 망상에 젖어 있다면 술을

즐길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과유불급'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이다. 술 또한 마찬가지다. 술은 건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한 것이다. 집단간의 돈독한 정을 쌓고 약간의 외로움과 슬픔을 달래기 위한 우리의 영원한 벗이다. 지금도 어디선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여 "절제하는 생활은 아름답다."는 말을 가슴 속 깊이 새기자. 오인택 사회부장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TEL:2603491·2/(0561)7702057·8 FAX:2791270 PC ID:dgpress

소나기

금강산 관광



△을 겨울은 금강산에서 아르바이트를... 막걸리나 팔아야지 △금강산 찾아가자 일반 이천봉 △고향땅 밟는데 50년 걸린 것도 억울한데 고향산 한 번 밟는데 뎀 돈이 그리 많이 드나

△이북의 한 내원이 말하더군요 '금강산이 이북의 실악산이 되지 않길 바란다' 고 아직 조심스러운 만남 이해하려는 노력! △금이 가득한들 이만하라 강철이 단단함을 이만하라 산이라 부르기도 부끄러울 때름이로다 △금강산 나도 한번 가보자. 돈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금강산도 식후경 △금강산의 자연이라도 보호하자. 개발도 너무 많이 하면 안돼요. △통일후에 돈 안들이고 갈까? △봉래산, 금강산, 개골산, 종약산 △나는 왜 금강산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을까? 우리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던게 아닐까? △아직 젊어서 그래요 △조선은 하나 △잘다녀 오셨수? 어됐수? 좋았수? 현대 너네는 장사밖에 모르냐? 나쁜 놈 준비도 제대로 안된게. △전국 노래자랑을 배안에서 개최한 것은 좋았나. △누구의 주제권가, 맑고 고운~꿈, 우리의 꿈은 실현될 것인가? △금강산 찾아가자, 일반이천봉... 금강산 찾아가자

△나는 금강산 가라! 내는 밤이나 먹을련다! △유~ 금강산. 나 백두산이야 △정말로 반부격자 심하네 △금:금이야, 강:강이야, 산:산이야, 관:관위라, 광:광수생자 △금:금싸라기 같은 돈 내고, 강:강과, 산:산을 보러간 우리의 실형민들, 관:관심있게 이를 지켜본 북쪽 사람들, 광:광적으로 반응하는 디...엔! 엔! 간첩산??? △금강산에 가면 금 뭘 수 있나요? △구경가시는 분들! 제발 자연보호 합시다!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는 관광은 언제쯤! △북한의 이익을 너무 들어주는 정책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누구나 갈 수 있겠죠!

다향관 학생·보리수 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Item (월, 화, 수, 목, 금) and Price/Details. Includes items like 김치어묵국, 돈까스, 소금국, 삼치조림백반, 정식, 민두육개장, 비후까스, 사골우거죽국, 함박.

동국관 교직원·학생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Item (월, 화, 수, 목, 금) and Price/Details. Includes items like 만두버섯전골, 콩나물밥, 옥개장, 갈비탕, 낙지전골, 짜장밥, 해물된장, 구구미비빔밥, 튀김우동, 사골곰국.

오늘의 열

임 남 도 (국제경제4·경주캠 총학 사무국장)

“카풀 참여하세요”

만남속에 따뜻한 정·보람 느낄 수 있어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작은 사랑을 품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다. 총학생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운동'의 적극적인 동참자이자, 주최자인 임남도(국제경제4)군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올 해 3월부터 교내에 택시가 진입

하는 것을 학교측에서 제한하게 되자, 1교시에 수업을 듣는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보고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며,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그의 말투에서는 이미 몸에 밴듯한 친절함이 묻어져 나왔다.



총학생회 사무국장이기도 한 그는 교내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난 17일에는 직접 홍보활동에 나섰고 5백대 정도의 차량에 카풀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했다.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차를 가진 모든

학생, 직원, 교수 등 3주체가 이 운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호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면서 힘든 일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목적지까지 태워주며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도 아무말 없이 내리거나 심지어는 '치'라고 반응할때는 기분이 상하기도 했습니다”라며 쓸쓸한 표정을 짓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답례로 커피 한잔 뽑아 주겠다고 말하거나, 소주잔한 하자고 농담으로 던진 말이 실제로 인연이 되어 그날 저녁 그 사람과 소주잔을 기울이게 됐을 때 사소한 것이었지만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죠”라며 밝게 웃어 보인다.

“성전동 방면으로 나가는 대부분의 교내 차량들이 빈 차로 나가기 보다는

사람 몇명 더 태워서, 정도 나누고 예너지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 이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며 자신의 바램을 진지하게 피력한다. 졸업할때까지 이 일을 계속할 것이고, 그 후에도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언제든지 동참할 것이라는 임남도군. “봉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작은 데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실천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라며, 평소 자신이 '사람을 실천하고 정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봉사 에 대한 신념을 전하는 것을 끝으로 그와의 만남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언제부터인가 남을 돌아볼 여유조차 가지지 못하게 되고, 자기 살기에만 급급했던 우리들에게 그의 말 한마디는 우리들의 차가운 가슴을 울리는 경종과도 같았다. (장)

만약이면 많아질수록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변호사의 수준은 경쟁을 통하여 향상되어지는 것이지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덧붙여 백화점식 사무실 운영으로 사법서비스 향상은 불가능하다. 사법서비스의 향상은 변호사간의 경쟁과 전문화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2002년에는 법률시장이 개방된다. 지금의 법률서비스로는 외국변호사와 경쟁을 할 수 없다. 과거처럼, 애국심에 호소하는 시기는 지났다. 양질의 서비스로 국제경쟁력을 길러 외국 변호사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변호사는 법률시장 개방과 국민의 인권보호차원에서 보다 더 많이 배출해야 한다.

병원 문턱은 아주 낮아져 국민이 아프면 누구나 쉽게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반면 법률문제를 갖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직까지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높다고 느끼는 것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법조계의 현실이다. 어느 누가 4~8백만원의 착수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래도 사법시험 정원을 줄이자는 말인가?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인 '밤 그릇 쟁기'의 사법시험정원 축소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사법시험 정원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다.

이철호(법학과 조교)

관성화된 우리의 '수업풍토' 면학풍토 조성애 앞장서야

어느덧 방학이 코앞에 다가온 것 같다. 벌써 기말고사 시험날짜가 하나 둘씩 발표되고 있다. 지난 10월 마지막주에 중간고사를 치르고 한달 간격으로 또 기말고사를 쳐야 하기에 왠지 이번 시험은 빨리 실시된다는 느낌이 든다. 올 해는 백상제전, 비베기 운동 등의 여러 행사로 인해 다른 학교에 비해 중간고사는 늦게 치고 기말고사는 빨리 치는 셈이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바로 방학이다. 어떤 학생들은 방학을 빨리한다고 좋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방학을 빨리 하는 현실이 무척대고 좋아만 해야할 일인지는 다시한번 되새겨 봐야할 문제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험을 빨리 치고 조기종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지는 것일까? 어쩌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빨리 시험을 치르고 평가까지 마치게 되면 쉬거나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서 좋을 것이고, 교양과목을 맡고 있는 외부강사들의 경우는 몇시간씩 차를 타고와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 주라도 빨리 마무리 되면 좋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모든 것을 다 덮어 둘 수는 없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한다. 우

리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빼앗기게 된다. 이제는 더이상 '휴강을 너무나 좋아하는 학생', '조금 늦는 교수님에게 휴강을 부르짖는 학생' 들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교수님의 사정으로 휴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강을 상당히 요구할 줄 알아야 하겠고, 조금 있으면 또다시 파릇파릇한 신입생들이 들어오는데 이들이 우리가 걸었던 똑같은 길을 걸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제 선거의 들뜬 분위기도 가라앉고 기말고사 기간에 접어들다. 학생, 교수 나아가 학교 전체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예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윤지혜(상경대 호텔경영 전공)

한해 결실 마무리하는 시점 남은기간 내실있게 보내자

한달여간을 걸친 온방골의 선거가 지난 26일 총학·총여를 끝으로 모든 막을 내렸다. 지난해의 경우 온방골내 모든 선거는 단독후보가 많았다. 이에 반해 올해의 경우 단체 뿐만아니라 중앙기구에서도 경선으로 치러져 선거기간 동안 그 열기가 다른 해보다 더했다. 서로간에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했고, 후보자 나름대로 선의의 경쟁을 했고, 그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그리고 다시금 시간이 우리들로 하여금 강의실 안으로 머물게 한다. 몇주일후면 한해동안의 캠퍼스 생활을 정리하는 시간이 된다. 자신에게 내렸던 수많은 계획, 신념 등을 평가하고, 반성해 봐야할 때인 것 같다. 잘못된 판단, 행동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지, 계획했던 일들이 무리없이 잘 진행되어 좋은 성과물이 있었는지 한 번쯤 차분하게 생각을 해 볼 일이다. 또한 사소한 일이라도 주위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고마움의 뜻을 늘 간직하고 있는지 말이다. 정성없이 뛰고, 캠퍼스 생활의 대부분을 할일 없이 거닐었다면 며칠남지 않은 학기종아라든 이제의 조금은 달라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남은 기간이라도 동아리 생활, 수업 시간, 여가시간 등을 알차게 보내고, 기말고사 기간에는 그동안 채우지 못했던 점수도 이제는 만회를 해야할 것 같다.

'IMF시대'라며 시작해 보기도 전에 좌절과 실망만을 갖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결실을 맺기 어려울 것이다. 시험기간에만 버락치기로 공부하는 학생들, 끈 돈 갖고와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항상 그 자리에서 자기앞에 놓여진 길을 조금씩 조금씩 찾아 가는 사람이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조금의 여유시간을 두고 한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동국인이 됐으면 한다. 임삼희(상경대 경영학부)



동약광장

A collection of cartoon panels. The first panel shows a character with glasses and a speech bubble saying '동약이' (Dongyaki). The second panel shows a character saying '아, 문득 있는데' (Ah, I suddenly remember). The third panel shows a character saying '저- 귀찮으시면 저랑 눈싸움 한번 하실래요?' (If you're bored, would you like to have an eye fight with me?). The fourth panel shows a character saying '조, 조조! (우와) 이게 왜 딱이냐?' (Yo, yo! (Wow) why is this so perfect?). The fifth panel shows a character saying '정말 인종 알았나?' (Did you really know my race?). The sixth panel shows a character saying '자- 귀찮으시면...' (If you're bored...). The seventh panel shows a character saying '와, 문득 스텝 개성입니다.' (Wow, I suddenly remember the character's personality).

목명글

축하합니다

△역교과 정·부회장으로 당선된 지역언니, 근혜언니 축하드려요 화이팅! △경릉 98 민정야 생일 축하한다.

-경릉 98일동 △동대아미추어야구회(L.A.E) 춘·추계 종합우승을 축하드립니다.

-23기 역, 석, 범 △15대 야간강좌 총학생회 건설을 위해 열심히 하신 선거운동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부당선자들 추가합니다. -자라

△삿갓생긴 삼미야 늦었지만 생일축하한다. -오이 △경진야 벌써 함께 지낸지 1년이 되었구나 생일 축하한다. -과대남

△자연과학부 1학년 이쁜이 이정은의 생일 축하해요. -현과대 △NEO-AD 제 15대 회장으로 성양원 선배님께서 당선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제비

-NEO1 일동 △중문과 사은회(11월 26일 목요일)했습니다. 이제 졸업이군요. 첫째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추카. -98 MIR

△도희야! 12월11일 너의 탄생을 감사한다. -너의 소중한 친구이고픈 찐

수고하셨습니다

△31대 자주적 학생회 건설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던 김동식 성운본 친구들 수고했어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모교 △짜이런 원어 연극 수고 많이 했다. 앞으론 밥 안 굶기마! -포이가

열심히 하시다

△31대 자주적 사법대 학생회 건설을 위해 함께 해주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내리기를... 열심히 착하게 삽시다. -킴 △내년 국고 98과대표 열심히 하세요. -까치네

△숙현이와 JY에 이어 현취와 희준이의 천원을 왕축하!!! -혜주, 영숙, 숙현, 삼미, 희정, 권경 97

그리고...

△사과계열 97학번 박모군. 재수강만 하는 사람이 연이를 학교를 만나오다니... 삼수강 하실랑가요? -격정선후 배가

은방글

축하합니다

△국사 94 김정훈, 찬보선배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토합일동 △우노의 탄생을 축하해! -인영 △관경 97 이장현군의 RT최종합격을 축하합니다. -MS0926

△미영야! 우리의 2백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영원히 변하지 말자. 사랑해. -까치네

△숙현이와 JY에 이어 현취와 희준이의 천원을 왕축하!!! -혜주, 영숙, 숙현, 삼미, 희정, 권경 97

△사랑하는 우리들의 벗, 영은이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녀의 벗 난영 & 연희 △경상학부 2학년 임영진 학우의 ROTC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핑구 여매 패거리 △사랑하는 영정야! 너의 취직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어려운 시기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동·영

수고하셨습니다

△영화모임 소남미 사 여러분! 10주년 정기영화관 축하하며,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국어국문학과 학술답사 늦었지만 모두들 수고 했어요. -학희장 & 문식

열심히 하시다

△폴폴야! 공군 "폭" 합격해라. -석장 family △경제학과 4학년 김무하. 면접보러 간다 매? 잘보고 와잉. -동문 후배 달·성

△형성 파출소를 지킬 권경 주년호 의경 시험 잘 쳐라. -?

△광현야! 마음의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 잘 갔다와라. 예비 군발야! -이쁜이

△상호야, 회장직 한다고 고생 많이 허나 다. 얼마 안 남았다. 힘내라! -winrain

알립니다

△국어국문학과 종합총회 12월 1일(화) 2시에 A308에서 합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세요. -유은식 95 국어국문(018-511-3169)

그리고...

△여러분! 성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흠

△온방골 학우님들에게 고하노라. 사랑하는 根 오빠에게 이상한 눈길 주는 여학우 가고해! -오빠 사랑하는 유니가 △윤정야! 재식야. 언제나 처음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해라. -친구들이